

# 예술지원정책 릴레이토론회

일 시: 2008년 6월 30일(월) ~ 7월 11일(금)  
장 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라코미술관 3층 강당

## 연극 · 무용

7월 2일(수) 오후 2시, 4시 30분

1회 문학  
6월 30일(월)

2회 시각예술 · 다원예술  
7월 1일(화)

3회 연극 · 무용  
7월 2일(수)

4회 음악 · 전통예술  
7월 3일(목)

5회 국제문화예술교류  
7월 4일(금)

6회 생활 속의 예술 · 문화복지  
7월 7일(월)

7회 제1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7월 11일(금)



# 차례

<b>I. 연극</b>	
• 발제	
- 연극지원정책에 관한 토론문 .....	3
안치운(호서대학교 교수, 연극평론가)	
• 토론	
- 한국연극의 위기 원인과 개선 방안 .....	12
정상영(한겨레신문 기자)	
- 순수예술의 지원방식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문 .....	16
손정우(연극연출가협회 회장)	
- 지원정책에 관한 토론문 .....	21
양정웅(연출가, 극단여행자 대표)	
- 연극 지원제도의 변화를 바라며 .....	27
손상원(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이사)	
-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지원제도를 통한 비전의 제시 .....	29
박장렬(연극집단 反 대표)	

<b>II. 무용</b>	
• 발제	
- 무용예술의 환경 분석 및 지원정책방향 .....	33
박성혜(판 공연예술네트워크 대표)	
• 토론	
- 무용예술의 환경분석 및 지원정책방향에 대한 토론문 .....	42
조남규(서울무용제 총감독)	
- 무용분야 지원에 대한 토론자료 .....	49
이종호(연합뉴스 기자, SiDance 예술감독)	
- 예술지원정책 연속토론회 무용분야 토론자료 .....	51
안병순(순천향대학교 교수)	
- 문화예술 지원정책(무용분야-창작) .....	55
박희태(우석대학교 교수)	
- 무용예술의 개선방향에 따른 실천과제 .....	59
황윤숙(공연기획 액투비 대표)	

## 프로그램

시간	진행내용
<b>주제 1: 연극</b>	
* 사회: 이흥재(명지대학교 교수)	
<b>발제(각 20분)</b>	
14:00~14:20	<b>발제</b> : 안치운(호서대학교 교수, 연극평론가)
<b>토론(각 10분씩)</b>	
14:20~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영(한겨레신문 기자)</li> <li>- 손정우(연극연출가협회 회장)</li> <li>- 양정웅(연출가, 극단여행자 대표)</li> <li>- 손상원(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이사)</li> <li>- 박장렬(연극집단 反 대표)</li> </ul>
15:10~16:10	<b>지정 및 자유토론</b>
16:10~16:30	<b>휴식</b>
<b>주제 2: 무용</b>	
* 사회: 이흥재(명지대학교 교수)	
<b>발제(각 20분)</b>	
16:30~16:50	<b>발제</b> : 박성혜(판 공연예술네트워크 대표)
<b>토론(각 10분씩)</b>	
16:50~17: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남규(서울무용제 총감독)</li> <li>- 이종호(연합뉴스 기자, SiDance 예술감독)</li> <li>- 안병순(순천향대학교 교수)</li> <li>- 박희태(우석대학교 교수)</li> <li>- 황윤숙(공연기획 액투비 대표)</li> </ul>
17:40~18:30	<b>지정 및 자유토론</b>
18:30	<b>토론회 종료</b>

# 연극



발제

## 연극지원정책에 관한 토론문

안치운(호서대학교 연극학과 교수, 연극평론가)

- 연극과 현실의 어긋남.
- 연극, 공연예술, 공연산업
- 지원정책과 윤리의 문제: 지원금의 증가에 따른 실행방법과 평가제도는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지만, 그것을 받아 활용하는 연극작가의 태도의 변화는 미미함. 연극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은 지원금의 증가와는 아주 다른 차원의 것임. 연극 바깥의 지원이 아니라 연극작가의 역량이 우선 향상되어야 함. 그러나 서열화는 역량 있는 젊은 연극인의 빈곤으로 이어지고 한국연극의 수준을 약화시킴.
- 지원의 함정
- 지원제도와 한국연극의 작가정신: 지원에 대한 오만과 편견 등에 앞서서 창조적 예술 활동이 무엇이고, 그 안에 작가로서 예술가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물어야 함. 그 다음이 지원임.

### 0. 오늘 이 자리는

학술적인 토론의 장이 아니라 한국연극의 지원정책을 말하는, 여러 의견을 듣고 모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다. 토론의 발제자로서 해야 할 일은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오늘 토론해야 할 바를 먼저 제기하는 것이다. 여기 연극이 있다. 이 연극의 뒤에 만든 이들이 있고, 이 연극의 앞에 연극을 보는 이들이 있다. 지원정책은 다리와 같은 것, 즉 연극을 만드는 이들을 위한 다리와 연극을 보는 이들을 위한 다리로 여기도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 연극에 대한 지원의 무는 공연예술이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과 공연시장이 협소하다는 것

을 내세워 공연예술 산업과 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정 계층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술소비자들의 향수 능력과 문화공간의 확충을 말해야 했고, 공연예술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문화상품이고, 공연산업은 4차 산업 혹은 문화산업, 문화의 시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지원을 주장하고 실천했다. 공연예술 시장의 협소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공연예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연예술산업의 정보를 대중화하고, 예술행정가의 전문성 확보 등을 강조했다. 이 발제문은 곧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제안서 같은 성격을 지닌다. 다리를 놓는 방법과 더불어, 다리를 건너가기 위한 자세가 그것이다.

## 1. 연극과 현실의 어긋남

위험하고, 불길하다.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와 시장의 논리의 어긋남이다. 우리가 책에서, 학교에서 배운 연극의 논리는 오늘날 한국연극 현실의 논리와 일치하지 않는다. 연극의 생산보다 소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효율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극단의 살림살이와 연극은 경제적 시장논리와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생산과 소비는 서로 짝패를 이룬다. 연극의 생산과 소비 사이에는 자본(돈)의 매개로 서로 교환이 이루어진다. 전에는 연극의 창조와 수용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연극의 생산과 소비이다. 생산은 소비의 거울이고, 소비는 생산의 거울이다.

더러 극단이 공동체를 주장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주의와 다르기 때문이다.<sup>1)</sup> 이 문제가 오늘날 한국연극을 지배하는 무거운 짐이다. 대학로라는 시장의 논리 앞에서 연극 창작의 자율, 자유로운 표현의 원칙을 추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오늘날 한국연극은 자본주의 사슬 안에 있다. 그것을 비유하자면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일과 유전자 조작을 통한 대량 생산과 유통의 문제이다. 지원정책이 지켜야 할 원칙은 이 둘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유기농법과 같은 연극제작의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지만, 그것이 지속되

---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공연시설의 54.5%, 공연단체의 53.8% 밀집. 공연실적도 수도권 집중현상. 공연예술의 특성상 대도시집중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이하 주는 <연극분야실태(생태계)>(서울연극협회, 2006), <2007년 공연예술실태조사>(문화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03년 문화예술인실태조사>(문화관광부,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창작지원방식 개선방안>(정광렬) 참조.

리라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sup>2)</sup>

1.1 연극, 극단, 연극제에 대한 정의

1.2 누가 연극예술인이고 어떤 공연이 연극예술작품이고, 누가 극단으로 인정인가? 그것에 대한 승인, 공인, 용인의 문제

1.2.1 승인adimission: 연극, 연극예술이라는 가치 부여과정, 작품과 작가에게 권리를 주는 입구의 비평적 담론

1.2.2 공인legitimation: 연극과 공연을 사회적 대상으로 공인하는 것으로, 연극의 규칙, 관습, 정해진 기준에 일치함에 따라 행해진 선별에 관계되는 제도적 담론

1.2.3 용인consecration: 1.2.2의 공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국가적인 상징이 되어있는 거장들을 용인하는, 문화적 담론

## 2. 연극, 공연예술, 공연산업

이렇게 변했다. 오늘날 연극은 예술이지만 산업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그럴 요소는 많다.<sup>3)</sup> 연극도 빠른 속도로 산업, 경영 시스템으로 변해야 하는 것일까? 불

2) <2003년 문화예술인실태조사>(문화관광부,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극분야 응답자는 대학재학 이상이 전체의 83.7%로 나타난다. 최종 학력전공과 현재 문화예술활동분야의 일치정도를 물었을 때 '일치한다'로 응답한 비율이 연극이 인접 공연예술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음악(91%), 무용(79.3%), 연극(48.4%) (2003 문화예술인실태조사) 직업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한다'가 전체의 62%나 된다. 연극생태계 내에서 일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생계유지수단으로서의 직업으로써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의 장래성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한다'가 전체의 62%나 되는데 반해 직업의 장래성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가 38% 정도 된다. 직업군으로서 연극생태계가 불안하기는 하나 연극생태계의 '장래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직업에서의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불만족. 예컨대 한연출가(남, 49)는 "먹고 살게 해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좋은 제작여건을 만들어주는 의미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런 형태의 지원만 있다면 연극계의 전망은 있다. 연극적 기초가 없다면 뮤지컬도 성공할 수 없다. 공연예술의 기초가 바로 연극 아닌가?"라고 말한다. 2005 공연예술실태조사에서 특히 연극단체가 타 장르에 비해 유료관객의 비율이(61.7%/ 무료관객비율 30.1%)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극단체 이외 유료관객의 비율을 장르별로 보면 양악(19%), 무용(8.8%), 복합장르(5.6%), 국악(4.9%)이었다. 연극과 달리 이들 장르에서는 무료관객이 유료관객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2003년의 경우, 해외진출공연의 상대 국가현황을 보면 18개 국가에 진출했으며, 일본이 10편, 독일이 4편, 중국, 프랑스 각 3편으로 많았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대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가한 해외페스티벌명으로는, 1 국제아동청소년극 페스티벌 오키나와/2 도토리 퍼포밍아트 페스티벌/3 독일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4 러시아 고전국제연극제/5 미모스국제마임 페스티벌/6 브로츠와프 페스티벌/7 아비농페스티벌 오프/8 에딘버러프린지/9 오폴레씨어터 페스티벌/10 요코하마국제연극제/11 전일본연극 페스티벌/12 제51회 국제민족페스티벌/13 프리텍-미스텍축제, 스트라니츠축제/14 한일아동청소년연극제/15 한일우정의해 기념페스티벌/16 ACT페스티벌/17 MANoVER World cup/18 Sommerwerf Theater Festival/19 The BITEI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20 The Sibiu International

거리가 많아진 시대, 자본주의와 독립채산, 흑자경영과 경영의 합리화, 디지털 시대와 문화예술, 미디어와 테크놀로지 등이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을 만드는 일은 수공업적이다. 사람들이 극장에 모여 하는 수공업이므로 기계가 만드는 대량생산과 다르지 않겠는가? 여기서부터 한국연극은 역설이 된다. 연극이 산업이 되는 바에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인가? 정말 연극은 산업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럴수록 연극(창작, 소비)에 대한 가치에 대한 사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극을 창조하는 일은 연극하는 이들에게 생활이 되, 생산해서 이윤을 붙여 파는 유통구조 속의 생활이 아니라 자신과 연극의 존재를 되묻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가난하고 쓸쓸하지만 자유로운 생활이란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이 연극과 연극하는 이들이 만드는 역설의 가치일 것이다. 강제로 연극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극하는 것이 자발적인 선택이라면 표현과 자유의 가치를 옹호해야 하는 것은 연극하는 이들의 몫이 아닐 수 없다.

- 2.1 선택과 집중 혹은 소액 다건 지원/다액 소건 지원
- 2.2 지원장르의 범위 문제
- 2.3 민간기업의 지원과 정부 기관의 지원중복 문제
- 2.4 국립극단, 서울 시립극단, 도립극단과 같은 국공립극단의 지원의 문제

### 3. 연극지원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개선되어야 한다면<sup>5)</sup> 지원정책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변경할 수 없다. 여기에

Theatre Festival 등이 있다.

- 4) 연극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거창 국제연극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춘천인형극제 /고마나루향토연극제 /서울연극제 /춘천마임축제 /밀양연극제 /안동예술제 /전남연극제 /핀터 페스티벌 /가족음악극축제 /경산예술제 /과천연극제 /대구호러연극제 /보령해변예술축제 /부산국제연극제 /부산연극제 /서울아동청소년 공연예술축제 /수원화성국제연극제 /아시테지 겨울연극제 /안산문화예술제 /통영소극장축제 /신라문화제 /춘천국제연극제 /포항바다국제연극제 /한일아동청소년연극제 /Pre-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 5) 이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지원의 패러다임과 지원방식은 거의 변화하지 않아 목표한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였음. ○ 지원의 패러다임에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새로운 사업들도 여전히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추진되어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한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선택과 집중, 창조자 vs 수요자 등에 대해 예술위원회 전환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고, 예술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검토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못함 - 선택과 집중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를 단순히 지원건수를 줄이고, 다년간 다액 지원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선택과 집중 방식을 도입한다고 한 사업의 경우에도 지원방식은 기존의 사업방식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 - 선택과 집중은 특정 사업에 적용하는 방식이 아닌 문예진흥기금 사업 전체에 적용되어 전략적 우선순

지원정책에 있어서 달라져야 할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 정확하게 말하면 달라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다.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아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달라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달라져야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sup>6)</sup> 이 부분은 토론 시간에 토론자들의 참여로 더 많은 논의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 3.1 지원정책의 역사적 변모<sup>7)</sup>
- 3.2 지원평가의 문제
- 3.3 지원결정의 문제

## 4. 지원정책과 윤리의 문제

연극행위의 정체성과 지원정책의 정체성은 도덕적으로 맞물려 있다. 지원정책이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윤리의 문제이되 동시에 동화의 문제이다. 지원책은 주는 이와 받는 이로 나뉘질 수 없다. 대부분 세금으로 하는 지원금은 주는 이의 잉여가 아니며, 받는 이의 구걸이 아니지만<sup>8)</sup> 지원 결정은 권위적이어야 한다.

위, 각 사업별 전략적 순위, 사업 내에서의 명확한 전략목표에 의한 지원방식이 체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지금까지 지원 방향은 아래와 같다.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예술의 가치 확산과 보전/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 예술의 생활화/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문화예술창작지원방식 개선방안>(정광렬) 참조.

- 6) 이것에 해당되는 예가 선택과 집중에 관한 논의일 것이다. "○ 선택과 집중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전제가 필요함/ ① 선택을 하는 가치와 목표 및 전략이 명확하여야 함. / - 예술지원의 철학, 예술계 및 시민사회의 수요, 정부의 정책방향, 성과평가에 따른 달성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예술창작역량 강화,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특정 예술위원회 임기, 특정 프로그램에서는 보다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함/ ② 집중을 위한 규모와 범위를 위한 수요와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대상범위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단순히 다년간, 상대적으로 다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위한 지원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선택과 집중의 전제나 필요충분조건이 아님. / - 명확한 목표 설정을 전제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으로 지원규모, 방식, 대상 등이 설정되어야 함./ - 또한 지원대상의 수요, 현장의 요구, 지원대상 사업에서의 지원의 구체적인 필요성과 지원범주의 적정성, 이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함. <문화예술창작지원방식 개선방안>(정광렬) 참조.
- 7) 2004년 이후, 지원목표는 다음과 같이 변모했다.  
 "2004년 이전: 예술창조역량 강화/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예술의 보존과 계승/ 문화예술향수기회 확대 /  
 2006년 이전: 예술창조역량 강화/ 문화예술 매개활동 확대/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지역문화활성화/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2008년 이후: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예술의 가치 확산과 보전/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예술의 생활화/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문화예술창작지원방식 개선방안>(정광렬) 참조.
- 8) 지원금 수혜현황 : 지원기관별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을 기준으로, 지난 2년 동안 중앙

사실 2000년대 들어 문민정부와 참여정부 이후, 정부의 문예지원정책사업은 그 앞보다 크게 호전되었다. 문광부, 문화예술위원회, 서울시 문화재단,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지원 사업 등이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sup>9)</sup> 이러한 지원사업의 역사는 지원방식과 평가에 대한 세부적 절차들을 크게 발전시킨 반면, 지원을 받는 연극작가들의 윤리적 태도에 대해서는 거의 방관하고 있다. 지원금의 증가에 따른 실행방법과 평가제도는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지만, 그것을 받아 활용하는 연극작가의 태도의 변화는 미미할 뿐이다.

아래 글은 몇 년 전에 쓴 필자의 글의 일부이다. 그대로 인용하면, “지원금의 외형적 증가만을 갖고 연극작품들이 더 많이 생산될 수 있겠거니, 공적 자금이 늘어나고 시상제도가 많아져서 연극작가들의 활동이 나아졌거니 터무니없이 믿는 것은 아니다. 상당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되고 많은 공연이 있었음에도 한국연극의 수준과 위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이다. 유추가 가능하다면, 연극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은 지원금의 증가와는 아주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한국연극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이를 충족시키는 첫 번째 조건은 연극 바깥의 지원이 아니라 연극 안 그러니까 연극작가 역량에 달려있다. 우수한 연극작가를 양성하고 좋은 연극을 만드는 역량은 희곡작가, 배우, 연출가와 같은 작가들의 의연한 몫이다. 한국연극 지원사업의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서열화 문제이다. 서열화는 경쟁조건들을 아예 무시한다. 질적 경쟁력이 아니라 나이와 지위에 따

정부, 자치단체, 문화예술위원회, 민간공공기관, 기업협찬 그리고 개인 후원자로부터 지원금 수혜 실태를 조사하였다. 기관별 수혜비율을 보면 자치단체 시/도 27.9%, 문화예술위원회 18.6%, 민간공공기관 14.7%, 기업협찬 및 개인후원금 11.4%, 중앙정부 10%, 자치단체 시/군/구 9.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년 동안 지원금을 2 받은 134개의 공연에 대한 총 지원규모는 26억 6,215만원으로 그 중 민간공공기관 지원금이 8억 7,100만원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자치단체 시/도 4억 2520만원(16.0%), 문화예술위원회 3억6,700만원(13.8%), 중앙정부 3억 5,145만원(13.2%), 개인후원금 2억 1,390만원(8%), 자치단체 시/군/구 1억 5,560만원(5.8%)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등)최근 2년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가 20.3%, ‘받은 경험이 없다’가 79.7%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시/도 (지역문화재단 포함)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작품이 56.5%, 그렇지 못한 작품이 43.5%를 차지하고 있었다.

- 9) “2006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총 문화예산은 약 5조4천4백억원, 문화예술예산 약 2조8천8백억원, 공연예술예산 약 9천억원” ● 2006년도 정부와 2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분야에 지원된 총 예산은 약 5조4천4백억원, 문화예술 지원예산은 약 2조8천8백억원, 공연예술 지원예산은 약 9,046억원임. ● 공연예술 분야에 지원된 총 지원금액 9,046억원 중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1,666억원, 7,380억원을 지원하였음. 2004년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총 176억원이 감소하였고, 중앙정부 지원금은 2004년에 비해 289억원이 감소,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113억원 증가하였음.

른 서열화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연극의 수준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것은 급기야 다음 세대의 역량 있는 젊은 연극인들의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절차들의 결함이 제거되지 않는 한, 지원대상 작품의 선정, 수상자 선정은 연극적, 비평적 평가 기준 이외의 기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4.1 연극의 장 이론:연극적 질서, 그 제도화와 자율화 과정

4.2 상징재象徴財로서의 연극

## 5. 지원의 함정

지원제도의 활성화<sup>10)</sup>, 연극의 산업화가 밀물처럼 밀려올 때, 필요한 것은 연극의 초심이다. 연극공부와 더불어 연극지원제도도 그런 방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다. “오늘날 연극은 정부지원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장르일 것이다. 늘어난 정부의 지원사업 결과인지는 몰라도, 가만히 앉아서 혜택을 누리는 오늘날 한국

10) 자치단체 시/도 지원금\_ 지원처 및 지원사업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문예진흥기금 공연 예술지원/강원문화재단 공연제작지원/경기도 고양문화재단 청소년연극/경기문화재단 일반공모/경기문예진흥기금/경주문화원 신라문화제/대구광역시 무대지원사업. 그리고 무대공연제작 지원으로는, 대전광역시 문예진흥기금/대전문화예술의전당 스프링페스티벌/서울문화재단/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행사 /무대작품공연지원/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지역공간활성화/서울시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공연예술작품 해외진출 지원/인천광역시 찾아가는 문화활동/문예진흥기금/인천문화재단/동아리축제/문예진흥기금/충청남도 문예진흥기금/충청북도 무대공연제작지원 등이 있고, 자치단체 시/군/구 지원금\_ 지원처 및 지원사업으로는, 경산시(경북) 경산예술제/고양시 정기공연및추계공연/부산광역시 찾아가는문화활동/무대지원사업/안산시 문예진흥지원금/인천남구청 구비보조금/인천서구청 소외계층시민문화활동/제천시 충북연극제참가/종로구 학교문화예술교육/춘천시 문화예술육성기금/충주시 무대공연 제작지원작/홍성군 문예진흥기 등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으로는, 계기성지원/국제교류지원/문예진흥기금기부금사업/문화소외지역 순회공연/사후지원사업/ 소외지역순회/신나는 예술여행/신진연출가지원사업/신진예술가 지원사업/예술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창의적 예술활동 지원사업/창작프로그램지원/창작활성화사후지원 등이 있다. 그 밖에 문화예술위원회의 정기적인 지원사업으로는,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예술창작 및 표현활동지원/계기성기획사업지원/문예지계재우수작품선정지원/시각예술기획사업발굴지원/공연예술프로그램특성화사업(창작희곡활성화사업이 여기에 속한다.)/공연예술창작전문단체집중육성/새로운 예술세계 개척/신진예술가 뉴스타트 지원/차세대작가발굴육성(청소년문예지)/무대예술인재교육지원/청년인턴채용지원/문예아카데미운영활성화지원/다원예술지원/예술현장 자생력 확보/기간제연예단체지원/예술전용공간지원/예술의 가치확산과 전/원로문예인복지지원/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공모)/지역문예 진흥/전국연극제지원/전국무용제지원예술의 국제 협력 증진/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베타니엔한국작가파견지원/국제기구가입단체활동지원/ 제레지던스프로그램운영지원/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참가지원/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해외민간문화단체교류및해외정보사업/해외주요예술인초빙프로그램지원/해외한국문화자원기초조사/남북및재외동포예술 교류기반구축 등이 있다.

연극의 속내는 더욱 쓸쓸해지고, 형편없어졌다는 것을 나는 체험하거나 목격했다. 산업 앞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연극지원으로 원치 않은 아픔이 자율과 자유를 큰 미덕을 삼았던 연극과 연극인들에게 밀려왔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해야겠다. 오늘날 많은 연극공연은 정부지원에 기대고 있다. 그 결과 좋은 작품은 보기 힘들어 졌고, 작가들은 줄어들었다. 연극이 메말라 죽지 않도록 지원이 계속 될수록 연극 공연의 횟수는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러나 연극이 관객이 아니라 지원과 붙어사는 동안 연극은 시나브로 망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연극의 불안한 현재가 지원금 사이로 빠끔히 보인다. 지원을 받았으니 할 수 없이 그 해 끝자락에 한꺼번에 공연을 해야 하는 이들이 많다. 정부의 지원과 연극 산업은 과연 한국연극의 혼수昏睡를 떨치게 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지원정책이 연극의 벤처venture이며 모험adventure일 수 있을까?”

- 5.1 한국 창작희곡에 대한 절대적 지원책에 대한 질문
- 5.2 문화유산인 극장 건축에 대한 지원<sup>11)</sup>
- 5.3 소극장과 같은 사립 극장의 지원

## 6. 젊은 시절, 글을 쓰거나 무대에 올라 연극

을 했던 바는 세상을 다시 시작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믿음 덕분이었다. 공연예술은 혼자 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닌 터라, 극단과 같은 공동체를 꾸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예술의 지방자치화가 이루어지고, 각종 공공 지원금과 유상행위에 따른 물질적 부가 늘어나고, 공동체 구성원의 역량보다는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는 바가 커지면서 예전과 같은 강한 공동체 의식은 크게 줄어들었다. 자연스런 결과라면 극단의 살림은 줄어들고, 구성원들은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개인적 자유를 획득하는 대신 각자 사회적, 예술적 고립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것이 혈연관계가 아닌 시민사회에서 예술가와 창작 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윤리적인 몫이다. 그러나 오늘날 낡은 공동체 정신에 의존한 공연예술이 설 수 있는 심층적 기반이 거의 붕괴되었다. 그 위에 세워지는 지원금 제도는 위기를 극복하는 수동적인 대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

---

11) 이 문제는 자체 지원시설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사회적 자산으로서 예술인이나 단체, 시민 등 보다 폭넓은 계층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음.” <문화예술창작지원방식 개선방안>(정광렬) 참조.

- 6.1 지원 후 평가의 문제
- 6.2 사후 지원/사전지원의 가치
- 6.3 지역 독립극단과 지역작가에 대한 지원

## 7. 지원제도와 한국연극의 작가 정신

지원의 앞과 뒤에서 사유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지원금과 연관된 작가정신이다. 연극작가가 도덕적으로, 예술적으로 자기성찰없이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을 것이다. 지원금 제도에도 연극의 인문학적 가치를 옹호하는 바가 들어 있어야 한다. 곁에서 볼 수 있는 젊은 작가들(희곡작가, 연출가, 배우 등등)은 너무 실용적이고 가장 세속적이며 일찍 늙어버렸다. 선비였고, 정신의 귀족이었던 연극작가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들이 지원금제도로 인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겠는가? 작가의 고향, 예술의 고향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인간의 고향은? 우리는 되물어야 한다. 지원에 대한 오만과 편견 등에 앞서서 창조적 예술 활동이 무엇이고, 그 안에 작가로서, 예술가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이 지원이다.

- 7.1 소비사회와 연극의 생산 구조에 대한 따른 지원정책
- 7.2 생산의 욕망, 지원의 욕망 그리고 지원정책

토론

## 한국연극의 위기 원인과 개선 방안

정 상 영(한겨레신문 기자)

- 한국 연극 위기의 원인
-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엄격해야 한다
  - 지원 방법의 효율성 찾아야 한다
  - 지원기금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 직접적인 기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공연단체들이 마음껏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게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 사후관리 철저하게

흔히 한국연극의 위기라고 한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원인을 찾아야 올바른 개선방법을 구할 수 있다.

한국연극의 위기를 불러온 외적인 요인으로 공연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들 수 있다.

최근 몇년 사이 뮤지컬이나 퍼포먼스, 무용극 등 멀티 비주얼 공연예술이 성행하면서 연극 수요층이 줄어드는 등 연극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한 티켓예매사이트(인터파크ENT)가 2007년 한해 동안 판매한 공연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웹, 전화, 현장 예매 포함)에 따르면 연극은 2006년 848건에서 2007년 855건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뮤지컬은 2006년 948건에서 2007년 1389건으로 4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뮤지컬은 한국 연극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로 소극장마저 잠식함으로써 연극계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대학로에서는 기존 연극 공연장을 개·보수

해 뮤지컬을 공연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고 뮤지컬을 위한 2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새로 짓는 곳도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연극 극단들은 연극층 확보와 함께 공연장 대관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젊은 배우들도 배고픈 연극무대보다는 뮤지컬이나 텔레비전, 영화 등으로 진출하려는 경향 탓으로 배우기근이라는 웃지 못한 상황에 놓인 실정이다.

무엇보다 연극계는 4년 전부터 공연장 임대료가 턱없이 뛰어 연극제작 환경이 더욱 악화되었다.

대학로에서는 2004년 문화지구로 지정되기 직전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공연장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극단들이 대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 오랫동안 소극장 무대에서 활동했던 연극 단체들이 높은 대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대학로를 떠나 혜화로터리 위쪽 등 대학로 주변부로 이주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극단 목화가 턱없이 높아진 임대료 때문에 오랜 터전인 아롱구지 소극장(150~180석)에서 쫓겨나야 했다.

현재 대학로의 109개 극장 가운데 객석 수가 80~120개인 소극장이 전체 50%, 120~180석인 소극장이 40%, 200석 이상 중극장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대관료는 120석 미만 극장은 1일 30만~40만원, 120~190석 극장은 50만~90만원선이며, 200석 이상 극장은 100만원 이상이다. 세금을 포함하면 한달 평균 1500만~1800만원이나 돼 제작비의 60~70%가 대관료로 나가는 형편이다보니 영세극단들은 “연극을 공연하고 나면 남는 것은 빗더미 뿐”이라는 푸념이 나올 만하다. 연극계에서는 “대학로를 연극인들을 위한 문화지구가 아니라 상인들과 건물주만 살찌운 상업지구를 지정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와 함께 해마다 높아진 인건비와 홍보마케팅비 등도 제작비 상승요인이 되어 연극계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연극의 위기를 초래한 내적인 요인으로 연극의 극심한 쏠림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지난 1~2년 사이 뮤지컬 붐의 영향으로 대학로 연극이 20~30대 젊은 관객을 겨냥한 로맨틱 코미디극로 쏠리고 있는 경향이 심각하다. 티켓예매사이트(인터파크ENT)가 2007년 한해 동안 공연 티켓 구매자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여성이 65%, 남성이 35%로 나타났다. 또 연령대는 20~30대가 80%(20대 50%, 30대 30%)로 가장 많았다. 이렇다 보니 공연계에서는 20~30대여성 관객을 겨냥한 상업적

인 공연상품을 양산하고 있고 연극계도 그런 경향을 뒤쫓고 있다.

문화의 편식현상은 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로맨틱 코미디극을 공연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으려는 것이 아니지만 작품의 쏠림 현상은 공연문화의 다양성을 옥죄어 연극계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특정 작품의 쏠림 현상은 관객들이 연극 작품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애므로써 관객들을 연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런 특정 작품의 쏠림 현상은 대형 기획사나 대형 제작사들이 2~3년 사이 연극 제작에 참여하는 추세가 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증 때문에 연극 작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젊은 관객의 입맛에 맞는 가벼운 작품에 집중하게 되고, 관객 동원을 위해 인기 연예인 위주의 스타마케팅에 기대려는 경향이 만연하면서 점차 연극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요즘 한국연극계 위기의 현실이다.

한편 연극계에는 연극계에 대한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문화재단, 각 지자체 등에서 무대예술공연지원사업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선정 방식과 기준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연이나 집단간 이해에 얽매이거나 몇몇 명망가들에게 지원이 집중된다는 불만이 많았다.

그 원인으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지원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던 점이 첫손에 꼽힌다. 실제로 그동안 지원제도가 작품 위주의 사전지원으로 진행됨에 따라 대본 위주의 심사에 치우친 경향이 많았다. 선정기준도 '사업내용의 창의성 및 참신성' '프로그램 참가자의 예술적 기량', '신청인(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등 모호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전 경력을 보고 심사하게 되면 결국 명망가나 그들과 친분있는 이에게 지원이 집중될 우려가 높았다. 따라서 심의위원 구성과 선정기준, 심사, 지원결정 과정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연극 관객(연극 동아리, 사랑티켓 회원 활용)의 의견을 선정 과정에 반영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만하다.

둘째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검토해 볼 때다. 이를테면 작품을 지원할 때 초연 작품과 레퍼토리를 구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

이다. 예술작품을 발굴하는 것 못지 않게 이미 검증된 공연이 재공연되어 레퍼토리화가 될 수 있도록 사후 지원 형태로 제작비를 지원하거나 투자를 하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셋째로, 지원기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한 작품 당 2천만 원 정도의 기금은 현재 제작 환경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자를 약간 보전해주는 정도로 제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대학로의 1개월간 공연할 경우, 정상적이 라면 최소 6천만원 이상의 제작비가 든다. 1개월간의 입장수입이 150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극히 드문 현실에서 설사 기금을 2천만원을 지원받은 공연단체라고 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넷째로, 직접적인 기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공연단체들이 마음껏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게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홍보 및 마케팅 인프라를 지원하거나 유망한 배우들을 심사해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연극활동을 뒷받침해주는 방법도 있다. 또 대학로 연극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소극장을 지원함으로써 극단들의 제작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효율적인 지원방법으로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원 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지원받은 단체나 연극인(작가, 연출가, 배우)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 지원이 실질적으로 연극 제작과 공연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감시 감독해야 한다.

토론

## 순수예술의 지원방식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와의 이원화 체계구축-

손 정 우(연극연출가협회회장)

- 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와의 이원화 체계 구축
-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서는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거창한 명분에 상관없이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함.
- 사전지원의 방식에서 사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자생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공연예술현장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해야 함. 신진예술가 지원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사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예진흥기금 축소에 따른 지원사업 개선방안

### ▶ 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와의 이원화 체계구축

#### 1. 현행: 위원회 중심

- 위원장과 위원이 임명되면,
- 이들이(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모든 정책, 사업을 위원회를 통해 결정했음
- 위원들이 각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구체적인 관련 지원사업과 정책을 심의
- 소위원회에서 사업지원 심의, 모니터링, 사후평가, 위원장 요청 자문, 심의 평가 기능 담당.
- 따라서 위원들이 자신의 분야(장르 또는 기능)를 하나씩 담당하는 형태로, 위원회에서 사실상 모든(지원정책 포함) 것이 결정.

- 따라서 위원들의 구성이 위원회 전체 운영의 성격과 색깔을 결정짓는다고 봐도 됨.

## 2. 개정안: 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와의 이원화

1) 위원회: 위원회의 일반적 정책과 정관, 시설운영 등에 같은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정책과 업무만 담당

2) 소위원회: 장르별 소위원회는 축소/유지하되 정책개발업무만 담당함.

\* 장르별 소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바뀜(임기 1년. 연임가능)

3) 기금운용심의회: 위원회의 기금운용 즉 구체적인 사업 담당

- 지원심의위원회 위원구성 결정을 과거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바뀜

- 이는 지원 사업을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총괄한다는 것을 의미함

\* 장르별 이기주의는 이 위원회의 사업내용상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봄.

- 장르별 소위원회를 없애서, 공식적인 장르대표제를 없애더라도,

- 위원회 위원선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소위원회 구성,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장르간의 다툼은 심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장르별 이기주의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려운데. (물론 내 놓고 다투는 일은 줄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치열해질 수 있음)

\* 현행 소위원회 구성: 13개 분야, 77명의 위원으로 구성

문학위원회(6명), 시각예술위원회(7명), 연극위원회(5명), 무용위원회(5명), 음악위원회(7명), 전통예술위원회(7명), 다원예술위원회(7명), 남북 및 국제문화교류위원회(7명), 지역문화위원회(7명), 정책위원회(6명), 기초예술의가치확산위원회(7명), 예술의 사회적역할확대위원회(6명).

## 3. 결론적으로, 개정안의 전체적 방향은,

1) 정책적 이슈는 소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것을 논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2) 사업적 이슈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그 목표로 함.

#### 4. 문제는,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것인데,

- 1) 현행: 당연직 5인(위원장, 사무처장, 위원2인, 문화부예술국장), 위원장 추천 2인
- 2) 개정안: 심의회 중요성을 반영해, 민간전문위원과 현장예술인 참여 확대.
  - 당연직 5인 + 민간전문위원 3인+ 현장예술인3인
  - 위촉직 6인은 →심의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복수추천→ 위원장이 위촉한다.
- 3) 그렇다면, 이 심의위원 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가 중요함.
  - > 심의위원 추천위원회구성에 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함.

#### 5. 마지막으로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 DB, Pool,뱅크제, 추천위원 공모제, 무작위 선정 등등 그 절차를 많이 복잡하게 높인다고 해서 과연 예술사업지원의 "투명성," "다양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을 지는 의문.
- 사실 복잡할수록 정치권력에 아부하려는 사람들의 참여를 높여주는 "어용성"만 높아질 수 있음.
- 지원 건수가 많다고 해서 해당분야 전문가가 아닌 사무처 직원이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 단체를 선별하는 것은 문제가 많음
- 문화예술행정 및 지원체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팔길이 원칙'과 함께 중요한 것은 '객관적 전문평가' 이다.
- 객관적 전문평가란 '예술분야를 잘 알고 있는 동료예술가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 더욱 공정할 수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의 지원 결정에 대한 심사는 같은 부류에 속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취지'로 영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처음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음.

\*21세기 아트센터의 예술경영리더쉽(이인권 저) 참조

- 하지만 우리의 경우 안치운교수가 발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술인 선후배 사이의 서열화/계보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객관적 전문평가'를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음. 개인의 독창성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예술계가 집단화 되는

것은 한국문화예술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며, 문제의 심각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서열화는 경쟁조건들을 아예 무시한다. 질적 경쟁이 아니라 나이와 지위에 따른 서열화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연극의 수준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안치운교수 발제문 인용)

\* 지원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지원심의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는데 있다. 유독 문화예술분야의 심의에 문제제기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파벌성과 장르주의에 기인한 바가 없지 않다. 즉, 문화예술인 중 상당수가 기금지원제도의 심의위원회에 누가 위촉되느냐에 따라 이미 자신의 지원여부가 결정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진흥실장 발제문 인용-연극분야에 대한 공공기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 )

- 이러한 서열화/집단화로부터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참여 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평가됨. (외부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 또한, 사전지원 방식에서 사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자생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공연예술현장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평가의 공공성,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신진예술가지원등 일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사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전 40%, 사후 60%)

- 사후지원 전환

## ▶ 문예진흥기금 재원의 안정적 기반 조성

- 문화예술위원회는 2010년 까지 연간지원 규모를 1천5백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전략을 'ARKO 비전 2010'을 통해 대외적으로 선언하였다.

- 하지만 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과 달리 기금은 매년 10%이상 줄어들고 있다. 2008년 올해 지원금 규모는 833억 원이며, 내년에는 700억 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문예진흥기금 사업비추이(2008예술위원회 업무보고 참조)

(단위: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업비	1,072	1,196	1,072	833	719

문예진흥기금 사업규모 축소

-2006년 1,196억 원→ 2009년 719억원(477억 원 축소)

\* 기금 적립금 인출 추이(2008예술위원회 업무보고 참조)

(단위: 억원)

구분	05년말	06년말	07년말	08년말	09년말
적립금 인출액	343	381	212	408	321
적립금 잔액	4,929	4,548	4,336	3,928	3,607

기금적립금의 지속적인 인출 및 적립금 규모 축소

-2006년 4,548억 원→ 2009년 3,607억 원(941억원 축소)

## ▶ 문예진흥기금 축소에 따른 지원사업 개선 방안

-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
- 문체부 정책사업, 서울문화재단, 지역 문화재단 등과 중복 되는 부분들은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아르코 예술극장, 대학로 복합공연장 등 자체지원시설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위원회와 유사한 미국 NEA(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의 경우 자체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2008년 현재 위원회 자체지원시설에 9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

- 따라서 자체지원시설은 예술위원회가 직접운영하기 보다는 민간이나 다른 공공부분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파급효과가 더 클 수 있음. 정동 극장이 그 대표적인 모델이며, 명동예술극장, 남산 아트센터(동랑레퍼토리극장)를 연계한 정부 차원의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토론

## 지원정책에 관한 토론문

양 정 응(연출가, 극단 여행자 대표)

-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보완과 수정, 그리고 정책 제시가 병행되면서 문화지원예산증액 및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함. 지원정책은 적어도 현실에 발을 맞추어 예술가들에게 희망을 안겨줘야 함.
- 지원 프로그램 제안 : 차별화지원 및 지원증액, 집중지원, 국제교류지원, 극장지원, 신진예술가지원 및 실험연극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작가지원, 생계/복지지원

적어도 문화강국을 지향하는 국가라면 문화지원예산증액 및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점차적으로 국가전체예산에서 문화예산을 확충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진정한 문화강국으로서 가야할 길이 아닐까? 연극계에선 지원금을 놓고 지원금에 안일하게 정착해버리는 '인디언보호구역'에 비유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지원확충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보완과 수정, 그리고 정책제시가 병행되면서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예술가로서 정신과 소양, 지원금에 대한 도덕성은 각자의 몫이다. 다수는 지원금과 상관없이 연극을 사랑한다. 그러나 한번이라도 연극을 제작해본일이 있는 연극인이라면 제작비에 대한 두려움과 엄청난 부채는 돌파구가 없는 미로와도 같다. 지원정책은 적어도 현실에 발을 맞추어 그들에게 희망을 안겨줘야 한다.

### 1. 차별화 지원 및 지원증액

극단마다 프로덕션마다 살림의 규모나 크기가 다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의

지원액은 거의 마치 평준화 원칙을 따르듯이 천편일률적이다. 예를 들어 집중지원의 경우 예술단체의 규모에 상관없이 경력과 나이를 기준이라도 한 듯 7천, 8천, 1억이다.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의 경우 2천에서 3천만원사이이다. 차별화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연하고자하는 극장에 따라 대관료가 다르고, 출연규모와 프로덕션의 차별 없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비슷한 양과 질의 공연을 양산할 결과가 크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스태프와 출연자 대관료 등 제작비가 크게 상승한 것에 비해 2~3천만 원 수준의 지원금은 결국 제작주최자가 결국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차기 작품 양산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 2. 집중지원

우수한 해외페스티벌이나 국내페스티벌 그리고 유명공연장에서 놀랄만한 규모와 수준으로 활동하는 외국공연을 보면 대부분 외국의 국공립단체보단 막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사설예술단체일 경우가 많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릴 것인가?

사설예술단체는 국공립 단체에 비해 규모는 다르지만 그 활동이 다양하고 자유로우며 활동 역시 활발하다. 유럽의 경우처럼 국공립단체 못지않게 사설예술단체가 예술의 깊이와 완성도 및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원규모가 커져야 한다. 현재 개인예술 단체의 집중지원은 7천에서 1억 원 규모로 한정되어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활동의 기대와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 제작비과중으로 점점 대극장공연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무대와 의상, 음악 작곡 녹음 등 완성도와 수준을 갖출 경우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4억원을 훨씬 넘는 제작비가 필요하다. 여행자극단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연간 총예산규모가 5~6억 원(참고로 극단여행자는 90명 규모의 연습실과 사무실을 운영하며 기획/스태프/배우 약 4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정도로 볼 때 3년간 지원금은 5천만 원씩 총1억5천만 원이다. 기초예술로서 시장성이 낮고 기업협찬이 전무한 상황에서 상업적 성격을 띠지 않고 티켓수입에만 의존해서는 늘 재정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 3. 국제교류지원

현재 국제교류지원은 국제교류재단과 예술경영 지원센터, 문화예술위원회, 외교통상부 4곳에 불과하다. 만약 한단체가 해외공연을 4군데 이상 추진할 경우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 그것도 국제교류재단과 예술경영 지원센터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결국 3곳이라는 말이다.

현재 유럽의 극장들의 경우 순수연극으로는 제작비 대비 티켓수입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시아 예술단체를 유치할 때 항공 및 화물운송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유럽 국가사이에서는 이동경비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훨씬 활발하다. 유럽의 많은 극장과 페스티벌이 아시아연극에 관심을 가지면서 선뜻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그 때문이다. 국제교류실태조사에서 우리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시아교류사례가 많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극단 여행자의 경우 올해 유럽 3군데 공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교류역시 공연에 국한하지 말고 해외레지던스만이 아닌 국제레지던스의 국내유치 또는 국제워크숍 등의 항목을 증설하고 중복지원을 풀어 해외연극 네트워크에 관심있는 단체들의 다양하고 활발한 국제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장려해야 한다.

### 4. 극장지원

궁극적으로는 소극장이라도 단순대관운영 수준을 넘어 시설확충과 투자가 지속되고 극장기획자와 운영관리자가 상주하여 단체와 작품을 초청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원액 증설이 절실하다. 모든 극장이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긴 힘들겠지만 적어도 극장의 타이틀을 걸고 의욕과 열정을 가진 소수의 극장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극장은 흥행성만이 아니라 예술적인 완성도와 현실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작품을 기획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더불어 관객개발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 채용 및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지원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극장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점진적으로 단체/작품지원에서 극장지원으로 전환하여 전문 인력과 시스템(제작/홍보/마케팅)을 통해서 양질의 작가와 작품들을 양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5. 신진예술가지원 및 실험연극지원

최근 몇 년 간 점진적으로 지원수혜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연극의 장기적 발전과 미래를 위해 좀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르별 전체 예산에서 20%까지 늘리고 고수해야 한다는 견해다. 심사위원 구성에서부터 분과를 달리하고 권위와 보수를 지양하고 혁신과 실험, 자유로움을 지향하며 결과보다 과정에 역점을 두고 장기간 지켜보며 보다 창의적인 신진예술가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기를 희망한다. 실험연극 역시 분야를 신설하여 전위적이고 공격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작가들을 양성해야한다. 1960~70년대 실험연극이 미국연극의 지대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실험연극은 끝없는 도전과 새로움을 이끌어내는 기폭제이자 기존연극에 자극을 주고 미래 연극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청량제이다.

## 6. 홍보마케팅지원

연극은 현재 일부 상업적 연극을 제외하고 홍보와 마케팅은 전무하다. 포스터만 부쳐놓고 관객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기 일쑤다. 기초예술로서 연극의 입지와 관객의 인식 역시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게다가 홍보와 마케팅, 관객개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홍보/마케팅/관객개발은 단지 상업공연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극단마다 소수 전문기획사에 기획대행을 의뢰하고 그것도 말도 안되는 비용으로 포스터와 전단, DM발송비만 주고 입장수입을 서로 나누는 것이 관례인데 사실 이쯤되면 관객이 안와도 극단측은 아무런 할말이 없다. 기획사 역시 이런 악순환으로 한 번에 여러 연극의 기획대행을 맡고 경비와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니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끝없는 소모전을 이어가다 다행히(?) 다소 흥행성있는 작품을 만나면 잠시 웃고 현실은 다시 반복된다. 현재 일부 뮤지컬에서는 홍보와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인다. 어떤 성공한 뮤지컬은 1년을 준비한 홍보와 마케팅의 결과라고 자랑한다. 그것도 홍보마케팅에 제작비만큼 돈을 투자한 결과다. 물론 연극은 상업성에 바탕을 둔 뮤지컬과는 그 태생이 다르다. 그래도 마케팅은 고사하고 홍보라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관객을 극장까지 인

도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상황은 지원금에서 제작비 충당도 모자란다.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하는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극장마다 제작/기획 파트보다 관객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위해 홍보마케팅인원이 많게는 2~3배 이상 확충되어있는 예를 보았다. 그만큼 우리보다 문화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나은 서구역시 연극관객개발에 있어서는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견해를 토대로 뭔가 새로운 정책과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7. 작가지원

최근에는 희곡상도 몇 군데 신설되고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모두 헤아려도 열손가락을 못 꼽는다. 적어도 상위 10% 작가군만이라도 전업작가군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은 창작극마다 작가료를 지급 한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이다. 2~3백만 원은 고사하고 1백만 원도 못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작가지망생들은 모두 생계를 위해 방송이나 영화로 떠난다. 이들을 끌어들이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꼭 완성된 작품만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놉시스 공모 등 과정을 통해 젊은 작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기성작가들 역시 작품개발과정에서부터 지원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야 한다. 비인기장르이어서 아니라 연극은 방송과 영화의 기본 장르이면서 동시에 이들 장르 역시 연극에 자극을 받고 발전해야 하지 않는가. 미국의 경우 유명 시나리오/방송작가들이 모두 희곡작가 출신인 경우가 많다. 그들이 쓰는 작품들은 모두 수준과 깊이를 획득하고 있다. 에딘버러에 트레버스라는 극장은 창작희곡신작만을 공연하기로 유명하다. 작가들의 작품은 의례 작고 얇은 단행본으로 출판하여 공연마다 판매하고 그 책은 런던에서까지 살 수 있다. 꼭 여러 작품을 엮어 출판하는 형식을 버리고 단행본 지원을 해서 창작극에 한해서는 그 공연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8. 생계/복지지원

중국에는 생계/복지 지원까지 이루어져야한다. 시대는 빠르게 상품화, 자본화, 시장화 되어 가는데 언제까지 가난한 예술가로 남기를 강요할 수 있을까? 절대적으로 시장형성이 불가능한 순수기초예술은 보호되고 육성되어야한다. 그것은 절

국 문화상품을 선동하는 이 시대에 인간정신과 철학을 외치는 소수의 예술가를 생존하게 하는 길이다. 그 길은 꿈같은 이야기이며 멀고도 요원하지만 설사 다수가 아니고 소수로 시작한다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확대되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전속단체의 신설/확충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그 경계를 넓혀야 한다. 대폭적인 세금감면을 통한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유도라든지 그 방법은 끝없이 논의되고 강구되어야 한다. '월급을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 더 이상 예술가가 될 수 없다', '역시예술가는 배고파야한다.'는 식의 논리는 곤란하다. 늘 위기와 불안속에 구원과 자기존재를 갈구하며 방황하는 것이 예술가의 숙명이기도 하지만 이제 연봉 몇 백만 원도 안되는 돈으로 배고픈 예술을 무조건 견뎌라하는 것은 무리다. 단지 잘 벌고 배부르게 사는 것만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예술가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희망일 것이다.

토론

## 연극 지원제도의 변화를 바라며

손 상 원(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이사)

- 연극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인가?
- 지원제도의 변화 필요성 또는 문제점

프로듀서 협회를 대표하여 토론에 참석한 관계로 다소 의견이 상업적이거나 산업적인 측면이 반영 될 수도 있겠지만 현 연극계에 많은 제작사들의 활동을 감안해 볼 때 의견이나 토론에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우선 발제문의 의견에 많은 공감을 하며 그 구체적인 안을 얻어낼 수 있는 단계적인 토론을 제안 드립니다. 연극계의 현재와 문제점 그리고 변화에 대한 기대치를 공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원제도에 대한 현재와 문제점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이 토론되었으면 합니다.

### 1. 연극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인가?

이 질문을 통해 현재 연극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로 토론하고 진단하는 것 순서라 생각합니다.

**\*\*과연 산업화가 가능한 것인가?**

1)현재 연극 제작의 형태를 구분하자면 극단의 창작 활동(지원금이 주 제작 배경이 되는 형태)와 산업, 기업화를 기대하며 운영하는 많은 제작사들의 현 실태를 파악해 보면서 그 가능성을 토론 했으면 합니다.

2)뮤지컬의 산업화가 연극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현재를 명확하게 파악했으면 합니다.

3)이런 급변하는 공연계에 연극 뮤지컬의 구분 없이 참여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통한 변화, 또는 문제점을 토론하였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위에 거론된 현 공연계의 현상과 결과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평가와 방향성을 토론하였으면 합니다. 일종의 미래의 연극계에 대한 기대 또는 우려의 이야기 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극장, 극단, 제작의 형태, 관객 시장 등의 예를 들며 토론되었으면 합니다.

## 2. 지원 제도의 변화의 필요성 또는 문제점

**\*\*지원제도의 많은 변화가 느껴지는 가운데 현재 언급되는 지원제의 문제점에 대한 가감 없는 실제적인 토론으로 현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토론자들이 서로 명확히 하였으면 합니다.**

**\*\*위 결과를 토대로 한 방향성에 대한 토론**

1)지원을 통한 얻고자 하는 결과를 무엇인지에 대한 원론적이 의견 공유

-혹 너무 당연한 질문일지는 모르지만 그 목적성이 더 구체적일수록 현 지원제도의 방향성이 더 명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지원의 형태를 구분 하자면 창작자지원, 공연전반에 걸친 인프라 지원(공연장, 마케팅 등), 소비자지원으로 영역을 구분 방향성에 대한 접근 시 가장 적절한 지원의 형태와 비중에 대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창작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은 상세한 방향과 방법이 토론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토론에 임하는 의견은 이러합니다.

IMF이후 지원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지원을 통해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도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술에 효율성을 따지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IMF이후 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10년의 오늘이 아님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의 계획은 당장 올해, 내년의 결과가 아니라 10년 뒤의 한국 연극계의 모습을 위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면서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론이 부족해서 지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토론

##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지원제도를 통한 비전의 제시

박 장 령(연극집단 反 대표)

- 극단의 로드맵 설정과 비전 제시에 기여가능한 지원제도의 역할 강조  
그러나 현재의 지원제도는 당락의 여부만이 중요.
- 효과적인 사후지원을 위한 아이디어들

성인이 되면 자신의 앞날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물며 많은 성인이 모여 있는 극단은 더욱 그러하다 연극이 공동의 예술이기에 앞날의 설계야 말로 절실한 단어이다. 십여 년 극단 대표를 하면서 가장 비참하게 대표를 괴롭히는 화두는 무엇을 언제 할 것인가 하는 일정의 문제이다. '무엇'은 단원들과 함께 시간과 생각을 통해 극단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언제'는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이유이어서 극단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한정되어 있는 외부적 환경에 대한 고민이다. 한 극단의 일정이 최소한 이 년 이상은 결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극단은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단원들 또한 능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몇 년의 일정을 갖고 있는 극단과 그렇지 못한 극단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다. 많은 극단들이 몇 년의 일정을 갖고 있다면 극단은 최소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생각과 훈련을 통해 연극의 새로운 비전과 꿈을 제시하리라 믿는다. 그런데 문제는 극단의 일정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몇 개월 후, 내년, 몇 년 후의 일정이 그려지지 않고는 하루살이 연극만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지원제도는 당락의 여부만이 존재할 뿐이기 때문이다. 난 기본적으로 사후지원제도를 생각해보며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 **내후년의 지원을 위한 접수와 심의를 당년도에 한다.** - 극단은 같은 지원금을 가지고 2년이라는 준비와 실행을 위한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질 수 있다.

□ **지원기관이 10개의 극장을 12주간을 임대하고, 한 극단이 일주일씩 공연하는 실연심사 공연을 통한 소액다건지원제도가 결합된 사후지원제도의 확대 실시** - 매년 일정기간에 이루어진다면 극단은 이 공연을 위해 준비할 것이다. 최소의 지원금(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많은 수의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심사단에 선정된 10개 정도의 작품은 다음해에 다각적이고 지속적(지원금, 극장, 홍보 등)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즉, 한 극단이 이 사후지원제도를 위해 준비하고 이를 통해 선정이 된다면 적어도 한 극단은 2년 이상의 일정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만들어 낼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일정표를 만들 수 있는 지원제도를 통한 비전의 제시** - 결과물을 공연할 극장다운 극장, 관객유치를 위한 홍보 등을 창작자에게 책임지라고 한다면 앞으로 연극계의 현실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지원기관은 지원금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의 작품을 현실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극장지원과 창작자들의 작품을 홍보, 마케팅 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상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무장한 그들이 나타나 연극을 송두리째 말아먹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극장의 등급제도도 급히 이루어야할 과제이고 지원의 다양한 방법의 일환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위한 지원제도도 급히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극단은 몇 년의 일정표를 가져야 한다. 그 일정표를 가지고 단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 일정표에 따라 로드맵 - 지원의 등급제도이다. - 이 그려지고 그 로드맵의 끝에는 함께 이루어야 할 비전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정표와 로드맵 그리고 비전 이 세 가지와 지원금의 방향과 목적을 지원기관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무 용



발제

## 무용예술의 환경 분석 및 지원정책방향

박 성 혜(판 공연예술네트워크 대표)

- 예술로서의 무용예술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를 높이고 일방적 시장논리에 의해 평가절하 되거나 당위성을 요구당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
- 직접 지원에 의한 지원축소나 단순화보다는 간접지원을 활성화하여 다각도의 발전가능성을 모색. 직접 지원에 따른 실패의 리스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예술진흥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식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
- 지역 중심 지원금 분할 원칙에는 동의하나 방법론에 있어 보다 민주적 이면서 공개의 원칙 필수
-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아 지원 성격이 지원금을 기계적으로 3년간 보장이라는 것 외에 차별성 전무함.
- 지원사업의 목표, 전략, 구조,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 시스템 등 전면 개편을 고려하면서 지원 프로그램을 특성별로 명확한 목표가 있는 체계로 개편

### 1. 무용 관련 기금 및 지원 현황

#### 재원 규모

##### 1) 문예진흥기금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가장 큰 비중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기금  
순수예술 중에서도 재정 자립도가 극히 취약한 무용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보다

도 상대적으로 의존도와 비중이 큰 기금

2007년 말 현재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규모는 4,336억원

-2004년 이후 전체 기금액이 감소되고 있음

-2004년 5,272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로는 문예진흥기금 폐지와 복권기금 축소로 전체적인 기금사업 규모가 급감

2008년도 현재 문예진흥기금 전체 사업 규모는 833억원

<표 1> 문예진흥기금 사업규모 추이

(단위 : 억원)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사업비	270	271	267	329	809	1,160	1,196	1,080	833

이중 2008년 무용 분야 정기공모 사업으로 약 20억원이 지원됨

정기공모 전체 사업 중 무용분야가 11%를 차지함

-전체 예산 증액을 위한 다각도로의 모색 절실

(이를 위해서는 추가 기금 확보를 위한 당위성과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함,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성과가 분명해야하고 이를 위해 목표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함)

-직접 지원에 앞서 간접 지원에 대한 다양한 검토 필요

<표 2>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 장르별 배분비율

(단위:백만원, %)

	2006		2007		2008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문학	2,447	18	2,633	15	2,909	16
시각예술	2,208	17	2,913	17	3,206	17
음악	1,226	9	1,955	11	2,081	11
무용	1,375	10	1,895	11	2,021	11
연극	1,609	12	2,214	13	3,424	19
전통예술	2,874	22	3,165	18	3,151	17
다원예술	849	6	1,080	6	1,055	6
문화일반	728	5	497	3	606	3
서울공연 예술제			850	5		
계	13,316		17,202	100	18,453	100

2) 이외 기금으로 문화관광부 국고사업과 외교통상부 등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관련 사업에 관한 약간의 기금

### 3) 재단 운영 기금

-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고양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CJ문화재단 다음세대재단 등에서 무용관련 직접 지원이 진행 중

### 4) 지자체 내의 문화예술 관련 기금

2008년 현재 무용관련 진행 사업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강원도, 부산직할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각 지역간의 무용관련 지원 기금이 진행 중

## 2. 지원기금의 내용 및 개선점

### 1) 무용 단체의 재정도

장르별 재정 자립도를 보면 무용 분야는 양악과 연극 다음으로 순으로 나타남  
-장르별 공연단체의 총수입 현황만 살펴보면 전체 평균 수입액은 약 2억원이며 양악이 2억 5천, 연극이 2억 4천, 무용이 2억, 복합장르 1억 6천만원, 국악 9천만원 순임(<2007 공연예술실태보고서>, 문화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관광부)

- 국립과 시립 무용 단체를 포함한 수치임을 감안하고 보면 전반적으로 미비한 수준
- 순수 예술 장르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함을 반증
- 일방적인 시장 경제에 의한 평가와 수용(소비) 형태로의 평가의 위험성을 내포
- 시장성=예술성=집중 지원의 공식의 위험성을 내포함

### 2) 현 지원 방식의 문제점

- 모든 기금의 최종 목적인 예술 진흥에 대한 재검토- 실질적으로 예술가 개인

이나 단체의 단일 프로젝트 성사에만 국한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검토

- 점차적으로 증감하고 있는 공연 횟수와 작품에 비해 레퍼토리 활성화에는 실패 (우수 레퍼토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별도로 공시되어 있지만 아직도 신작 공연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

- 지원의 패러다임과 지원 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적용했지만 커다란 목표 달성 및 성과에는 미비

- 직접 지원의 지나친 편중

- 소액 다건의 기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지만 아직도 미비

- 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대안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성과 불투명 (공연형태의 본질적 변화 전무, 작품을 통한 대안과 선택과 집중 지원을 받지 못한 타단체 혹은 개인과의 차별성 획득 실패, 심도 깊은 기획과 계획을 위한 3년간 시간 안배가 그 만큼의 느슨함으로 연결되어 긴장감 결여, 운영의 전문화를 벗어나지 못함)

- 지원 분포를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원로와 젊은 무용가보다는 중진 중심으로 지원되어 일종의 다이아몬드 형태의 양상을 보임- 적극적인 신진 발굴과 기회의 다양화, 건전한 의미에서의 경쟁 도모와 육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연령별 지원 구조가 피라미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 이를 위해서 젊은 무용가들의 지원금 수혜자로의 진입이 보다 용이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학교수와 동문단체 지원보다는 전문단체를 지향하는 개인과 단체에 적극 지원 필요.

- 지나친 공연 중심, 성과 중심 평가로 인해 무용가들의 재교육의 여건과 기회가 상대적으로 협소 (대안으로 등장한 '춤공장프로젝트'와 현재 실행 중인 '안무가 집중육성지원사업'이 있음. 그중 올해로 2년차를 맞은 '안무가 집중육성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무용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진행해온 교육 방식과의 차별성이 전무)

- 지원금이 확정되면 공연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무용단 증가와 이에 따른 무용단 운영의 전문성 결여는 장기적 기획 부재와 직결

- 지나치게 많은 공연에 대한 전면적 검토 필요 (공급과잉)

- 다양한 지원 시스템 활용이 가능한 만큼 지원 관련 정보와 네트워크의 공유화 절실

- 지방 지원금의 경우 소규모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함 (종류만 많은 사업 내용과

나누어주기 지원 등등)

-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예술성이 뒤떨어지는 작품과 예술가들 중심으로 지원금 배분의 가능성이 높음(이에 따른 수도권 중심 활동 무용가들에 대한 역차별의 가능성이 큼)
- 지방일수록 심의와 평가 소홀의 가능성이 농후함

### 3) 대안과 개선

#### (1) 무용예술 철학과 지원 방식의 재정립

예술로서의 무용예술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를 높이고 일방적 시장 논리에 의해 평가 절하되거나 당위성을 요구당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

- 경제성과 대중성이 다소 뒤떨어지더라도 기초 예술로서의 무용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숙지하고 무용의 특성상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어떤 장르보다 세계적 보편성과 동시대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각인시킨다.

#### (2) 직접 지원에 대한 지원 축소나 단순화보다는 간접지원을 활성화하여 다각도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보

##### 간접지원의 가능성과 모색

###### \* 공간 개발 및 활성화

기존의 극장, 연습실, 자료실 등을 적극 개발해 연습, 워크숍, 연구의 공간 활용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내용성을 담보하고 개발

-예를 들어 최근 서울 및 인접 지역에 들어서고 있는 많은 구 단위의 극장과 재단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해 예술가들과 시민들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접촉의 가능성 향상을 꾀함. (안산 지역에 이미 형성된 다문화의 집결과 결합체로서의 춤이 가지는 유용성과 용이함은 이미 검증된 바가 있음)

\* 행정인력 및 기관(예술경영지원센터, 아르코인력개발원, 아르코지원컨설팅, 국제교류재단 등등)을 통해 네트워크 공유화 및 개발 가능성 모색

- 기관을 기금 수혜로만 국한하지 말고 무용단 운영 컨설팅 자문, 공연 관련 전

문 인력과 교류, 국내외 축제 및 아트마켓 참가의 확대 등의 다각도로의 무형의 지원 가능성 확대 및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에 적극 활용

\*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한 재교육 및 교류

-예술가들의 역량 개발과 교류차원에서 다양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활성화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경우 자연스러운 국제교류로의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년간으로의 연계된 사업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면 적극 권장할만한 간접 지원 및 사례로 여김

- 국제무용협회에서 진행한 아시아 무용예술가들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6년 <문순 프로젝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2007년 무용 레지던스 프로그램 <땅따먹기 프로젝트> 경기문화재단, 성남 문화재단 공동 주최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무용수, 안무가, 무용기획자, 평론가, 전문 스텝들의 역량과 다양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

-지역과의 연계와 모색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가능성을 확보 (국제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용이)

-인력 교류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정한 문화예술 교류와 이해에 있어 이전과는 다른 접근의 방법론(취발성 강한 일회성 공연 교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

\* 간접지원은 사회적 자산으로 축적, 재활용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경험과 정보, 구축된 네트워크는 창작을 위한 여건 조성, 매개, 역량 조성 및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보다 많은 혜택과 지속적 효과가 가능함

- 즉 사회적 자산으로 축적이 용이

-직접적인 지원에 따른 실패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자 방지책으로 예술진흥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도 다양한 지원 방식 개발과 수단 도입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

### (3)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등 완화

\* 지역 중심 지원금 분할 원칙에는 동의하나 방법론에 있어 보다 민주적이면서 공개의 원칙의 필수

\* 상대평가의 한계를 넘는 대안으로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량있는 무용인들의 적극적인 지방 활동을 유도

-이를 위해 지역 예술가 안배와 좋은 프로그램 우선이라는 양날의 칼과 같은 현실적 문제 인식(지역 상황에 맞는 인센티브 적용)

\* 지역 무용인들에게 나누어주기 지원금에서 벗어나 지역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향유라는 차원에서 특색있는 기획 공연과 같은 공격적 프로그램에 우선 지원

-개인보다 단체, 단체보다는 기획 공연 우선 지원

\* 일회성 프로젝트 중심보다는 다년간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우선 지원

\* 무용단 조직 신용도와 예술적 역량, 지원 제도에 대한 충실성과 높은 관리 수준 등 다양하게 재고.

-지원금 수혜 여부에 따라 순간적으로 진행되는 헤쳐모여 팀에 대한 경계

#### 4) 선택과 집중

\*전반적 구조와 원칙이 보다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아 지원 성격이 일반 단체의 지원금을 기계적으로 3년간 보장이라는 것 외 차별성 전무.

\*프로젝트 공연과 단체와의 차별성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소모성에 그치는 지원의 한계를 고려해보면 다년간 지원은 필요.

-다년간 단체 및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방식 전면적 확대

\*단순한 개인 혹은 단체의 예술활동 보전과 유지의 차원을 넘어 문화예술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이에 상응한 기준과 결과물이 수반되어야함

\* 3년 동안 10개가 넘어서자 단체 선정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초기의 목적조차 희미해짐

-선택에 대한 가치 검토

-지원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평균 지원액을 증대하며 지원심의 및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

\*사후 지원과의 병행을 모색하면서 목표와 성과에 대한 점검, 지원 방식 전환

\*선택과 집중의 방식과 추진 절차를 비교적 시간적 여유로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 분석 후 선정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이 차별적으로 반영

-해당 단체의 단위 프로그램을 전략적 차원에서 분석 및 평가

(소요 예산과 비례해 기계적 적용과 평가에서 벗어나 보다 유기적이고 창조적 평가 절실)

### 5) 지원 심의의 문제점 및 개선

\*지원 사업의 목표, 전략, 구조,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 시스템 등 전면 개편을 고려하면서 지원 프로그램을 각 특성별로 명확한 목표가 있는 체계로 개편

\*무용에 대한 현 지원(11%)를 명확한 원칙을 두고 배분

-무대 예술로서 활용성, 기초 예술로서의 기본이면서 본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과 연결되어 국제화 프로그램 개발 및 가능성에 대한 유익성을 고려해 볼 때 전체 지원의 상향 조절의 필요성이 절실. (참고 표3)

<표 3> 영국의 Grants for the Arts 분야별 지원예산(2008-2011)

(단위 : 파운드, %)

분야별	2008/09	2009/10	2010/11	합계	평균
복합장르	120,000(2)	329,440(5)	387,108(5)	836,548	278,849(4)
무용	1,058,555(18)	1,195,424(18)	1,248,792(17)	3,502,771	1,167,590(18)
문학	252,260(4)	242,841(4)	231,235(3)	726,336	242,112(4)
음악	554,147(9)	619,108(9)	676,544(9)	1,849,799	616,599(9)
탈장르	459,077(8)	518,910(8)	538,685(7)	1,516,672	505,557(8)
연극	2,709,890(46)	2,785,056(41)	2,858,198(39)	8,353,144	2,784,381(42)
시각예술	680,548(12)	1,127,159(17)	1,303,409(18)	3,111,116	1,037,039(15)
합계	5,834,477(100)	6,817,937(100)	7,243,970(100)	19,896,386	6,632,128(100)

영국의 경우 전통 연극을 영어권 회복과 전파라는 차원에서 전층적인 연희 형태를 연극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볼 때 연극이 유독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해 보더라도 연극(42%) 다음 순으로 무용 (18%)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주시할 것.

\* 공통적인 지원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별 특성화된 세부 지원 심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적용

-매년 전략적 우선 순위 및 목표를 설정하여 적용

\* 세부적인 지원 심의 기준을 마련해 기준 미달 여부에 대한 검증을 통해 즉흥적이고 일회적인 지원 사업 배제 도모

- 지원 신청의 충실성과 체계적 기획의 유도 효과 기대

\* 세부적인 지원심의 기준에 의거해 각 항목별 기준에서 세부기준별 충족여부에 따라 배점을 하는 방식 접근

-예를 들어 공통적인 지원심의 항목을 예술적 우수성, 사업수행능력 및 실현가능성, 재정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사업의 파급효과, 정부정책 및 기관의 목표달성 기여도 등을 배점 후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배점

\* 사후 평가 등과 연계하여 실질적 관리 및 평가 도입

토론

## 무용예술의 환경분석 및 지원정책방향에 대한 토론문

조 남 규(서울무용제 총감독)

- 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저변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함.
- 공연예술전문단체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 필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책의 득과 실에 대한 논의 필요함.
- 심사의 공정성 확보

정책입안자는 '명분'과 '겉모습'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 무용계를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착안을 해야 하고, 그것에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현재, 무용공연의 관람율이 2000년대가 1990년대보다 수치적으로 높아졌지만 무용계가 체감하는 것은 항상 같다. 그것이 무용예술의 기본적인 문제점이다. 문화 향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예술을 어릴 때부터 접해보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무용의 경우, 학교 교육에서 무용이 접해지지 않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무용을 향유할 수 있는 저변인구 확대가 되지 않는다. 무용교육이 체육과 선택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최소한 표기 과목화 되어야 하고, 또 예술중고등학교에서조차 무용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체육교사 자격을 따도록 한 정부의 법부터 고쳐야 무용의 저변인구가 확대되고 문화향유 현상이 증가될 수 있다. 무용교과는 정신문화, 정신교육의 하나로서 체육과는 하루속히 분리되어 하나의 독립적인 교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용예술의 근본적인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용

계의 현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1. 청소년의 무용예술에의 접근, 소비계층화의 문제

위에서 언급한대로 청소년기에 무용예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권의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저변인구의 확대가 가능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정책적 협의를 통해 무용교육의 교과목 독립화 내지 표기과목화를 통해 무용을 선택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또한 봉사활동에 점수를 주듯이 무용 예술관람을 필드스터디 과목화 하는 등 제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2. 공연예술전문단체의 개념 재정립 필요

무용의 경우, 대학교수 이끄는 무용단은 전문단체가 될 수 없다는, 비현실적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무용수가 대학에서 길러지지 무용학원에서만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무용단체로 지정받은 단체들의 공연에 동문무용단에서 빌려온 무용수들의 역할에서의 비중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전문무용단체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작품을 만들어 공연을 하되 무용수들에게 조금이라도 출연비를 주라는 것 의미가 아닌가.

발제문에 따르면, 대학 교수 및 동문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전문무용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의 무용계의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사료된다. 대학의 동문단체와 현재 문화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전문무용단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대학 무용단체가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의 무용이 없고, 그 속에 속한 스타급 무용수들이 없으면 한국의 무용계를 이끌어 갈 수가 있으며 발전이 있겠는가? 문화위원회의 전문무용단체로 지정된 단체로서 독자적인 무용수를 가진 단체가 몇 단체나 있는가? 고등학교 교사는 무용수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 전문무용단체로 지정해주고, 엄청난 훈련된 무용수를 가진 대학교수-동문단체 운영자는 전문무용단체가 될 수 없도록 심사를 해버리는 것은 한국의 무용발전을 저해하는 문제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 3. 기금의 의존성 문제

기금을 신청한다고 화려한 계획을 내어놓고 지원을 받으면 공연을 하고 지원을 받지 않으면 그 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선택과 집중 지원과 소액 다건 지원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된다. 선택과 집중을 받은 사람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공연을 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좋은 작품을 내어야 할 것이다. 소액 지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돈을 조금이라도 보태어서 공연을 한다. 선택과 집중 제도가 생기고, 또 다액 지원이 생기다 보니 내가 혜택 받을 때까지 내 돈을 들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액 다건정책이 기금에의 의존성을 줄이는 방법일 수도 있으며, 정말 의욕을 가진 무용가가 자기 돈의 일부를 투자하여 공연을 하게 된다.

### 4. 지원정책의 문제

선택과 집중 지원책은 능력 있는 안무가를 엄격히 선정하여 좋은 작품을 내어 보자는 의도이지만 작년까지 해온 결과를 보면 대학 교수가 아니고 혼자서 무용하는 사람들이 소위 '독립무용가'라는 이름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과연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안무가가 발전하는 데는 단계가 있다.

먼저 소극장 같은 데서 여러 번 공연을 통해 실패를 거듭하다가 작업의 완성도가 커지고 그리고 나서 대극장에서 큰 작품을 할 수 있도록 발전하는 것이다. 우리 현실에서 보면 대학만 졸업하면 안무가가 된 듯 착각하고 무대만 만들면 작품을 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아주 위험한 투자이다.

소액 다수 지원제도를 꾸준히 시행해서 작은 공간에서 젊은이들이 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선택과 집중에서 대학교수=동문무용단체 지원은 안 된다는, 가진 자의 것을 박탈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난 지원책이 필요하다. 사고의 전환이 없으면 그 동안의 실패가 계속 반복되고,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 5. 극장 대관의 문제점

무용은 공연장이 없어 공연도 못한다. 신작도 이들 공연이 고작이며, 레퍼토리 공연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려 해도 공연공간이 없어 하지 못한다.

무용에 대한 지원금 비율이 11%, 연극에 대한 지원이 12% 정도 (금년에는 연극 100년 때문에 19% 수준)이므로 연극과 무용이 주로 사용하는 아르코 극장의 공연공간 할애에 이 비율에 맞게 해야 한다. 지금은 대관 일수 별로 보면 80: 20 수준도 안된다.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국립명동극장이 완성된 단계에 있으므로, 이제 무용전문 극장을 주어야 한다.

## 6. 지원방식의 문제

-첫째도 공정. 둘째도 공정이다. 심사위원에 따라서 해마다 경향이나 지원 방향이 달라져도 안될 것이다.

-1개 단체 1개 사업만 지원 대상으로 묵시적으로 제한하여 큰 협회단체와 개인 단체를 동일시 취급하여 평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을 후보군으로 하여 무작위 추출(랜덤 방식)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 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본다.

## 7. 기획공연 중심 지원책에 대한 반론

개인보다는 단체, 단체보다는 기획공연 위주라고 한 것은 몇몇 국고 등 공적자금을 받아 기획하는 사람, 소수의 상업적 기획자 등을 옹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무용가라는 집단이 소수의 기획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로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작은 입자가 모여 하나의 물체가 되듯, 강한 무용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지원기관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기획자는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기획자가 지원을

받고, 무용가는 또 일부 경비를 내어야 공연을 할 수 있고, 이런 단계가 되면 현재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무용가들만 피해자가 되고, 공연을 하고 싶은 무용가는 기획자 앞에 가서 줄을 서야 한다.

공연기획자가 기획 사업을 하면서 공적자금을 받고, 평론가로 활동하고, 그러다 보면 무용가들이 그 앞에 가서 줄을 서야 하는 그런 현실을 지원기관에서만 들어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런 왜곡될 수 있는 현실을 지원기관이 시정해주어야 한다.

## 8. 선택과 집중의 문제

선택과 집중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년 3-4 공연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공연 하나하나를 보면 결국 1회성일 뿐이다. 또한 이의 수혜자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공연 횟수를 채우나 하는 생각에서 대형 행사에 참여하려고 하거나, 개막공연 무대에 초청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런 점이 바로 그런 선택과 집중 지원 제도의 허점이다. 지원을 했으면 그 돈으로 규정된 횟수만큼 몇 번이고 공연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회성이 소모성지원이라고 규정한 발제자 의견에 나는 동의 하지 않는다.

왜 무용가들이 일년에 한 번도 공연을 하지 못하는가? 공연을 하려면 최소한 5천만원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것도 극장이 없어서, 이들이 고작이다.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듯 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원금에 자기 돈까지 들어가며 하는 작품 하나를 무대에 올린다. 그런 것을 일회 소모성 공연이라고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은 무용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년 20억원 규모의 지원금에서 몇 개의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가. 티끌을 모으지 않으면 태산을 만들 수가 없다.

## 9. 지원 기관의 비대는 곤란

발제자의 발제 내용에 지원 기관의 기능 다양화에 대한 언급이 있다. 좋은 제안이긴 하지만 지원 기관의 기능 다양화는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원원가의 상승만 불러 올 뿐 정작 지원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문화위원회 아르고 극장은 극장 운영기관으로만 존재해야 하는데, 공동기획이나, 또는 독립 기획이니 하면서 사실상 대관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획이 민간의 공연과 차별적인 것이 아니고 결국 '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기회 준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 10. 국제 레지던시

국제 레지던시 계획이 참 좋은 시도이다. 젊은 이들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짐작은 되나 금년도 국제 레지던시 계획에서 좋은 작품이 나왔던가? 구호나 명분이 좋다고 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선 국내적으로 탄탄해지는 노력이 급선무이다. 국제적인 교류와 영향은 여러 방식으로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 11. 지방 무용계에 대한 지원 문제

지방무용계의 지원금 배부는 토착활동 무용가 중심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지방에 가서 수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계기성에 한 해야 한다고 보며, 지방에서는 무용 공연을 하겠다는 것에 가장 큰 점수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그 중에서 수준의 차이를 검증해야 하지만 지방에서의 무용활동은 저변인구 확대라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어야 하며, 예술성이 일차적인 잣대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 논제 이외의 건의:

0 한 해 피지원 단체들 중 최고의 작품에 대해 익년도 자동 지원 시스템 도입, 경쟁 유도

0 다년간 지원과 공립 극장 상주단체 제도의 병행 시행 건의:

다년간 지원 단체를 선정하고 이들을 다년 기간 중 국공립 극장에 2-3개의 상주단체를 입주시켜, 이들이 매년 작품을 발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수립 시행하는 제도를 전국화 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그렇게 되면 지방은 지방대로 수도권

은 수도권대로 공연과 수작의 탄생 가능성이 커짐.

0 미국의 national Initiative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더 구체적으로는national Initiative를 통해 공연예술에서의 '한국성' 그리고 이의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통해 모방적인 공연예술이 아니라 한국적이고 차별적인 공연예술의 완성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도록 함이 필요함. (전통을 확대시키자는 말은 결코 아님)

토론

## 무용분야 지원에 대한 토론자료

이 종 호(연합뉴스 기자, SiDance 예술감독)

- 오늘날 여타 공연예술 장르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무용 분야에 대한 지원비중을 늘여야 함.
-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제는 아직도 구호에 그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작가중심의 지원, 과감한 신진 육성 지원, 관객개발 지원 등을 해야 함.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무용계의 종합적인 의견과 희망을 토대로 구성해야 함.
- 프로젝트 등에 대한 간접지원 강화
- 심사위원은 현장 사정에 밝고 안목과 형평성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함.

### 1. 무용 분야에 대한 지원비중을 늘여야 함

-오늘날 여타 공연예술 장르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각종 공연예술이 무용을 지향하는 성향마저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용분야는 공연예술 중에서도 일종의 기초분야로 간주할 필요가 있음.

심지어 연극 중심의 축제들도 무용 내지 무용적 공연물을 선호하고 있음.

-갈수록 문화교류가 활발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국제성이 강한 무용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임.

-무용은 자체 존립기반이 가장 취약하고 유난히 사회성이 박약해 각별히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불리한 여건 하에서도 최근 10여년 간 가장 괄목할만한 질적, 사회적 발전을

이러한 분야가 무용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2. 효율적 지원 필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제는 아직도 구호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작가 중심의 지원

-신진 육성은 좀더 과감히

-관객 개발 지원(현재 가장 빈약한 부분)

-3년간 집중지원에 대한 관리와 관찰이 필요하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지난해 시작한 신진안무가 육성 프로그램의 대폭 개선 필요(연극기획사에 의한 비전문적이고 미숙한 진행 등)

(앞으로는 무용계의 종합적인 의견과 희망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 3. 간접지원 강화

-현행 소극장/스튜디오 지원 외에도

-프로젝트 및

-축제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 국고지원을 받는 민간행사 중 음악과 연극에 비해 무용은 너무 빈약.

## 4.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심사위원 구성

-과거 문예진흥원 시절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위원회로 전환된 이후에도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각종 심의, 자문에 동원하는 인력 풀이 빈곤하고 편중돼 있음.

-담당 공무원 및 직원들은 해당 분야의 현실을 좀더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각급 심사위원은 현장 사정에 밝고, 안목과 형평성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함.

토론

## 예술지원정책 연속토론회 무용분야 토론자료

안 병 순(순천향대학교 교수)

- 예술분야 전체에 대한 지원예산확보의 불안정한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지원관련 예산과 선정방법에 대한 일원화된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심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무용예술 지원제도의 다변화. '발굴지원', '맞춤지원', 신진에 대한 '무조건' 지원 등
- 무용인들의 사회적 의무. 어떤 형태로든 일반 국민들의 예술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책무를 지녀야

무용예술의 환경 분석 및 지원정책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무용관련 기금 및 지원현황, 지원기금의 내용 및 개선점을 다양하게 제시해주었다. 본 토론자는 발제내용을 기반으로 지원정책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기초예술인 무용분야 지원을 논하기 이전에 예술분야 전체에 대한 지원 예산확보의 불안정한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큰 틀에서부터 고민하고, 안정된 기금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선행되어야만 매년 반복되는 지원예산구조의 불안정성에 따른 엄청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절대액수의 부족함과 지원예산확보의 불안정한 구조야 말로 국가가 책임질 일이지 예술인들이 마련하고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이다. 실제로 문화예술 진흥과 안정된 재원마련을 위해 문화예술위원회는 눈치보아야할 기관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예술지원정책을 위한 재원은 국고나 복권 수입 그리고 기업 후원이든 간

에 국가와 사회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며, 여건 또한 늘 안정적인 구조를 이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복권기금은 국고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위해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써야한다”로 바뀌어야 하며, 매년 일정한 비율의 정률제를 통해 제도적인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복권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소외계층만을 위한 지원” 등과 같은 논란이 없어짐으로서 안정된 기금확보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정착될 것이다. 예술이 무너지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생각을 하면 결코 아낄 수 없음은 당연하며, 더불어 문화예술 예산을 경시해 온 기획재정부 등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과거에 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나 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나 지역 문화재단 등이 벌이는 지원 사업은 상당히 늘어났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지역에 산재된 문화재단들, 그리고 외교부, 법무부, 여성부 등 제각기 흩어져있는 지원제도와 방법들에 대해 무용인들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예술인들은 매우 혼란스럽다. 따라서 문화예술 지원관련 예산들과 선정방법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공유를 위한 일원화된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심사제도 또한 심사인력풀을 구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 무용가들이나 단체 그리고 기획 전문가들조차도 도처에 흩어져있는 많은 예술지원 정책과 제도 그리고 문화시설의 활용정보에 이르기까지 에너지낭비를 감수해야만 한다.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수많은 문화재단들의 지원제도와 활용방법들에 대하여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보면, 지원정책과 활용 그리고 심사시스템의 정보공유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는 조속히 시행하되, 문화예술위원회 중심의 효율적인 책임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심사인력풀의 구성이나 선정과 평가방식은 매우 부실하며, 따라서 해당 무용가나 단체의 과거 수 년 동안 축적된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수치화가 가능한 평가지표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별도의 비용부담을 해서라도 취약한 평가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세밀한 평가기준 즉, 예를 들면 과거 수년이나 몇 십년정도의 자료들만 축적해서 일정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만 구분해도 기성과 신진이 함께 지원평가를 받아야 하는 폐해정도는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무용예술 지원제도의 다변화 정책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식으로 파격

적인 액수를 지원했으나, 그나마 제대로 작품을 만들려는 무용단체는 의욕과 압박감 그리고 기대심리에 의해 제작비가 크게 상승했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한 작품들을 내놓았다. 대안으로 발제내용에서도 거론되었듯이 안무가 집중육성지원사업과 우수 레퍼토리지원 사업 그리고 집중단체육성 프로젝트 등이 있지만 그 역시도 성과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발굴지원” “맞춤지원” 그리고 신진에 대한 “무조건 지원” 방법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일정 기준요건과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단이 무용가와 무용단체등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굴하여, 안무가든, 무용수든, 제작관련 지원인력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의 생산요소를 판단하여 채워주는 맞춤지원시스템과 또한 신진의 경우 지원의 범위를 대폭 개방하여 소액이라도 일정기준을 갖추면 무조건 지원해주어야 한다. 여기에도 나름의 자격기준과 일정기간동안의 평가기준이 있음으로 어려운 예술가의 길을 선택한 신진들에게 큰 용기를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교류의 다양성차원에서 매우 유리한 분야인 무용예술은 해외진출과 함께 연평균 200회 이상의 해외단체와의 교류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국제현대무용제(Modafé), 국제즉흥 춤 축제, 창무국제예술제 등은 우리나라 무용예술의 국제교류와 세계적 위상제고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들 기획에 있어 우리나라무용수준의 국제적인 위상과는 반대로 공통적으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지원여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거의 무한대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어서 거의 매년 기적만을 바래야하는 억지논리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세계무용축제들은 항상 서울에서만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하여 앞서 제기했듯이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지방권역과의 상호소통을 통해 기획초기부터 우수레퍼토리의 지역 순회공연 등의 구조적인 지원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장기적인 무용예술지원정책의 대안으로 제기된 무용복합 센터인 춤 공장건립프로젝트는 국가차원의 큰 틀에서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무용인들의 사회적 의무는 바로 예술교육의 전문성과 결부되어 있음으로 어떤 형태로든 항상 일반국민들의 예술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책무를 지녀

야 한다. 실제로 모든 예술가들은 예술교육의 전문가로서 교육자라는 책임성과 의무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원기관 또는 지원정책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예술을 향유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일반 국민들의 예술적인 정서와 소통을 위한 활동의 촉매역할과 감상에 이르기까지 도와줄 책무가 있는 것이다.

새 정부 들어서 문화관광부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뀌었다. 스포츠는 국운을 걸고 꿈나무 육성과정부터 메달리스트들의 연금지원수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정지원과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스포츠 전반의 분야를 두고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주무부처의 여러 기관에서 차원이 다른 행·재정적 지원의 시스템을 보면서 예술 특히 기초예술분야는 사회편익의 공정이익에서마저도 가려져버리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가령, 스포츠메달리스트들과 예술분야 수상자들의 병역혜택 기준을 동일시해서 가치판단을 해야 하는 실정에서 무용계 병역혜택 축소 등을 보면서, 그 기준이 같다면 왜 예술분야 수상자는 그에 합당한 연금혜택 등의 지원은 없어야 하는지? 국운을 좌우하는 스포츠만큼의 국위선양 분야가 아니어서 연금지원 등 별도의 혜택까지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스포츠스타는 대중성이 있지만 예술스타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체육계의 행·재정적 범위와 지원프로세스는 현실적으로 광범위하다. 구호만 문화강국이고 실체는 체육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이제는 기초예술을 포함한 대중예술분야도 한류외교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무엇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예술정책이고, 예술인을 위한 지원정책인지 다시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문화예술정책의 근본적인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토론

## 문화예술 지원정책 (무용분야-창작)

박 희 태(우석대학교 교수)

- 기금의 재정적 감소가 현재의 창작 역량 강화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음. 그러나 재정이 창작 활동에 다소나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는 주목해야 함.
- 지원정책, 기금분배, 수행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있어야 하지만 공연 예술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뮤지컬 분야의 재정, 기획, 홍보, 관객마케팅, 인력양성 등에 대한 벤치마킹이 절실히 필요
- 무용 분야 창작지원사업에 대한 세밀한 논의들
- 이들 사업에 대한 수혜자는 직접적으로는 무용가 자신일지는 몰라도 문예진흥기금의 궁극적인 목적과 예술지원에 대한 가치는 '예술가 지원보다는 예술진흥'에 있음.

무용분야의 현황과 분석은 선행 발제되었던 「문화예술 창작지원 방식 개선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렬연구위원)과 「무용예술의 환경분석 및 지원정책 방향」(판 공연예술네트워크 박성혜 대표)에서 상세하고 명확하게 진단되어있고 창작 지원정책의 개선과 방향에 대한 좋은 제안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수한 발제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향후 무용분야 지원정책에 반영되어 무용예술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위 현황과 분석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며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 역량 강화에 따른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에 있어 돈은 창의력과 함께 창작 작업의 에너지원 일겁니다. 그리고 태생적으로 지원은 받되 간섭받거나 회계, 평가에 대해서는 다소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문예진흥기금의 조성 감소(기금폐지, 복권기금축소, 금융수입

감소)와 전년대비 247억원 감소된 83,250백만원으로 편성된 기금지원사업액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지원금 의존도가 높은 순수 창작예술가들에게는 근심거리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타 예술 분야보다 재정자립도는 낮고 기금 의존도가 높은 무용분야의 무용창작 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19개 세부사업 중 예술 창작 및 표현 지원, 공연예술 단체 집중육성 사업, 신진 예술가 지원 사업 등이 정기공모 사업입니다. 무용분야 정기공모 사업은 2006년 이후 전체 사업 중 10%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08년에는 20여억원이 지원되며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재정적 감소가 현재의 창작 역량 강화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행 분석된 '전국문화예술 행사 현황'에 따르면 무용분야의 행사횟수가 복권기금이 전입된 2004년 1,588회에서 2005년 2,234회(40% 증가)하였다 최근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향유사업으로 문화소외지역 순회공연 등 일회적이고 행사성 공연들로 인한 양적 증가의 결과로 치부 될 수도 있으나 재정이 창작활동에 다소나마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편 '문화예술 관람율 변화현황'에 따르면 무용공연 관람율이 2000년 까지는 4%내외를 유지하다가 2003년을 정점으로 1% 미만으로 떨어진 점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이는 지원 정책이나 기금 분배 및 수행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있어야 하지만 공연예술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뮤지컬 분야의 재정, 기획 및 홍보, 관객마케팅, 인력 양성교육에 대한 벤치마킹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창작 지원의 방식,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목표 및 프로그램 구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목표(정책목표)에 따라 정책사업 하부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분류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예술창조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목표에는 과거 문예진흥원 정책과 수행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위 목표에 '예술 현장의 자생력 확보'와 '새로운 예술 세계의 개척'이라는 목표가 추가되고 세분되어 사업비가 배분되고 있다는 점외 구체적 사업들에 대한 예산 사업내용 사업주체, 추진 방식이나 절차, 심의방식, 지원 형태 역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심의의결과 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노력한 면이 보이거나 이에 대한 평가 역시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원되는 사업 중 지원 형태가 창작이며 직접 지원 하는 사업을 주 대상으로 논의코자 합니다.

## 1.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전국무용제 무용협회 주관( 3.92억원)

91년 춤의 해를 계기로 탄생된 무용협회주관의 지방 무용축제

따라서 지방 무용협회를 순회하며 진행하는 대규모 행사로 지방무용 활성화에 기여한 바 매우 크며 문화 향유차원에서 사업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실제 지역 예선과 본선을 준비하는 지방무용단체들에게 어려움 큼

지역문예진흥지원 (48.00억원)과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50.00억원)은 실제 지역 무용인들의 창작력 강화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나 심의 방식(지연, 학연 등) 기금 배분( 소액 다건)에 있어서는 창작지원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 발제된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자(전문가 부재)에 대한 홍보와 교육프로그램 정례화해야 합니다.

## 2.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문화예술 국제 교류지원( 31.00억원 144중 무용 19건) 이나 남북 및 재외동포 예술교류지원 (5억원 37중 무용2건) 은 무용창작 분야에서는 국제교류의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기에 역량을 집중해 주어야 할 분야입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증가 동남아 국가와의 전통예술 교류가 필요합니다.

## 3.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핵심적인 사업으로 지원액, 선정규모면에서 가장 크다. 따라서 무용분야 중 문제점이나 개선책이 늘 제시된 사업으로 기 발제된 개선안에 대한 관계자들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거쳐 합리적 수용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예술 창작 및 표현 활동 지원( 82.44억원 628중 무용 36건)

공연예술전문단체집중육성 (45.00억원 52개 단체 중 무용 12개)

공연예술프로그램 특성화사업 (12.00억원 12명 무용인 선정) 안무가 집중육성 사업

#### 4.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예술전문인력 (청년인턴채용지원) (9.00억원 매개 (간접))

공연인력(무용가, 스텝)과 전공자 감소등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지방 무용가들과 무용전문단체에는 매우 유효한 사업으로 더욱 확대되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원 예술 지원 (12.00억원)

무용인들의 타 예술 분야와 작업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고무적이다.

신진예술지원 (신진예술가 뉴스타트지원) (12.57억원)

#### 5.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예술 극장기획프로그램 (5.97억원 ( 매개/ 간접 ))

비교적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업으로 창작과 공연에 필요한 인력 풀제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대한 연구와 선행사업과의 연계로 합리적 운영을 모색한다면 창작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외의 효과를 기대할 사업으로 봅니다.

위 운영되는 5가지의 무용분야 창작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직접적으로는 무용가 자신일지는 몰라도 문예진흥기금의 궁극적인 목적과 예술지원에 대한 가치는 '예술가 지원보다는 예술진흥에 있다'는 즉 '관객과 이웃과 함께하는 무용예술'로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토론

## 무용예술의 개선방향에 따른 실천과제

황 윤 숙(공연기획 액투비(ac2b) 대표)

- 기초예술로서의 무용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다양한 방식과 방법으로 보여주고 증명해야 함. 이를 위해 관객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무용분야의 세분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직무의 활성화로 무용관련 직업 시장을 넓히고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
- 젊은 예술가들이 창조적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 실천과제  
철저한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과 평가 틀 개발, 무용단 운영 및 창작 작품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노력, 지원정책과 더불어 육성정책의 병행, 국고 지원 창작물에 대한 활용도 제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얼마나 즐기며, 문화적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988년부터 실시한 문화향수실태조사(1988년부터는 3년 주기로 실시했으며, 2006년부터 2년 주기로 변경, 또한 유효표본수도 2003년까지는 2천명을 하였으나, 2006년에 3천명으로 그리고 2008년 조사에서는 4천명으로 증가됨)에 따르면 1991년 무용 관람률 평균횟수가 1.3%였던 것이 2004년도 3.2%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계속 떨어져 2006년도에는 0.01%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숫자로 그간 무용공연이 양적으로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며, 문화예술 총 관람률이 영화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무용분야 수요에 대해 무용계는 철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기초예술로서의 무용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다양한 방식과 방법

으로 보여주고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객 연구와 문화중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한해 무용과 졸업생이 약2천여 명이 배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용분야의 세분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직무의 활성화로 무용관련 직업시장을 넓히고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

일부 무용 작품에서 관객의식을 사로잡는 방식이 도입되었지만 아직 소극적인 상태이며, 무용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의식의 칼라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 **1. 철저한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론과 평가 틀 개발이 시급하다.**

- 현황을 분석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여러 측면에서의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현 무용계의 다양한 활동양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과 평가 틀이 부재한 상황에서 재검토의 타당성과 명분을 찾기 위한 근거는 부실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공연 전·후의 평가를 통한 질적 연구와 다양한 층의 관람객 만족도도 함께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평가방법론과 평가 틀이 다양한 측면으로 개발된다면 무용가 및 무용단체를 위한 좋은 컨설팅 자료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무용단 운영 및 창작 작품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16개 시도의 예술단체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행정적 절차였으며, 필요로 하는 것은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와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였다. 또한 궁금한 것으로는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알고 싶어 했다. 따라서 우수사례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되고 이를 알려나가는 활동을 한다면 건전한 경쟁의식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역 간, 장르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차별성과 전문성을 담보 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지원 패러다임과 지원방식이 다양해졌음은 일부 인정 하지만 그 내용이 아직 미흡하며, 지원정책과 더불어 육성정책이 병행되었으면 한다.

-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안무가를 지원하는 정책이 아닌 정부가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극장과 협력하여 각 지방에 안무 센터를 세우고 그곳을 통해 기본적 교육과 멘토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를 현 무용계에 질적 접근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재교육은 물론 전문 인력 양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일회적인 지원 양상을 벗어나 지속적이며, 근본적인 지원방식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4. 지원 규모에 따른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 지원 규모에 맞는 관객 대상별 전략적 우선순위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공연 홍보와 전략적 마케팅이 모색되어져 일반인들의 무용공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5. 국고 지원 창작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함

- 우수 레퍼토리 공연이 활성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작 및 직접지원에 지원금이 편중되어 있는 만큼 국고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창작물의 경우 무대, 음악, 의상, 움직임, 기획, 홍보, 마케팅 등 모든 내용을 컨텐츠화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다른 2차 창작물에 응용 및 활용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6. 공연 현장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예술의 전당 화재 사건이후 방염처리가 안된 무대 소품은 절대 반입이 금지

되는 등 그나마 안전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인재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무한 상태이다. 예측불허의 사태가 많은 무용 공연 현장에서 10여년을 지내오면서 요즘은 지금까지 큰 사고가 없었음에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든다. 모르면 모를까 현장의 특성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안전장치 마련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시장화 되지 않은 예술과 대중을 고려하지 않은 예술은 아무리 순수예술임을 감안하더라도 설 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아직 무용은 많은 부분에 있어 정형화되어 있고, 실험적 요소가 희박한 상황이다. 따라서 무용계의 젊은 예술가들이 창조적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